



2012년 8월 제조업생산 위축

채원영 연구원

- 2012년 8월 제조업생산¹⁾은 전월대비 0.9%(전년동월대비 0.3% 증가)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음.
- 수출부진과 내수 경기 부진 심화, 제조업 재고 증가, 국내 소비·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향후 제조업 경기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.
- 2012년 8월 내수출하와 수출출하 모두 부진하여 수출 경기와 내수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.
 - 내수출하는 전년동월대비 3.5%(전월대비 4.9%) 감소하여 전월(-0.1%)에 비해 감소폭이 커졌음.
 - 수출출하는 1.7% 증가(전월대비 1.0% 감소)하였으나 전월(2.4%)에 비해 증가폭이 줄어들었음.
- 제조업 재고/출하 비율은 116.8%로 전월(108.1%)에 비해 8.7%p 급등하여 재고 부담이 향후 제조업 생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9월 소비자심리지수(CSI)는 99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며 현재 경기판단 CSI는 66으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음.
- 제조업의 9월 업황 BSI는 69로 전월대비 3p 하락하였고, 10월 업황 전망 BSI도 72로 전월대비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8월 국내기계수주도 전년동월대비 16.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기업 설비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또한 2012년 8월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2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폭이 전월(0.6%)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.2p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
(2012년 8월 산업활동 동향, 통계청, 9/28)

1)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자동차업계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2012년 7월 27,300대, 8월 약 116,000대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8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.8% 내외 하락한 것으로 추산됨. 자동차업계 파업은 소매판매(승용차판매), 서비스업 생산(도소매업), 설비투자(운송장비)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음(7월 → 8월(전월비, %): 승용차판매 3.0 → -13.5, 도소매업 생산 2.3 → -1.9, 운송장비투자 -5.9 → -33.2).